

영광군, 7천389억 원 규모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영광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6천645억원 대비 744억원(11.2%) 증가한 7천389억원을 편성해 영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5천844억원 대비 598억원(10.23%)이 증가한 6천442억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는 본예산 801억원 대비 146억원(18.23%) 증가한 947억원이다. 제1회 추경예산 가능별 세출예산

은 사회복지분야 1천807억원(181억원 증), 국토및지역개발분야 564억원(151억원 증), 농림해양수산분야 1천503억원(133억원 증), 교통및물류분야 454억원(74억원 증), 환경분야 767억원(73억원 증)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사회복지' 공설 장사시설 건립 92억원(73억원 증),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52억원(43억원 증), 영유아 보육료 지원 55억원(32억원 증)

'국토및지역개발' 묘량 농공단지 조성 50억원(23억원 증), 곤울재 도로 개설 15억원, 도시재생 활성화 22억원(15억원 증), 불갑산 하이패스 IC건설 21억원(11억원 증), 지적재조사 사업 19억원(10억원 증)

'농림해양수산' 연안정비 3개지구 31억원(16억원 증), 다 같이 돌자 성산 한바퀴 15억원, 스마트팜 육묘장 조성 11억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8억원

'환경' 하수도정비 사업 4건 151억

원(31억원 증),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64억원(21억원 증), 영광 제2정수장 개량 28억원(14억원 증) 등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군민을 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경률 기자

“꽃 피는 봄...장성군이 즐겁다”

장성군이 화사한 봄꽃과 음악, 체험으로 가득한 축제를 마련했다.

먼저, 이달 20~21일 진원면 산동리 일대에선 '유채꽃축제'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을 입구부터 이어지는 1.2km 구간 유채꽃밭은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명소다. 승마 체험, 유채꽃 체험버스 등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콘텐츠들도 선보인다.

즐길거리도 많다. 난타 공연, 마술쇼, 풍선아트, 풍바, 현장 노래방 등 방문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로 축제의 흥겨움을 더한다.

한 달여 뒤인 5월 24~26일에는 대표 봄축제인 '길동무 꽃길축제'가 막을 연다. 올해는 옛 공설운동장 부지를 '황룡정원 잔디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한 점이 눈에 띈다. 물빛 공연장 음악분수 앞에 무대를 만들고, 잔디광장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피크닉 관람석'을 설치하고 있다. 잔디밭에 여유롭게 앉아 공연과 황룡강 봄 풍경을 감상하기 좋을 듯하다. /유광중 기자

다. '피크닉(소풍)'과 축제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다.

코스모스,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 알록달록한 봄꽃도 풍성하게 피어난다. 황룡강변 3.2km 구간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한다.

지난해 황룡강 가을꽃축제에서 큰 찬사를 받았던 '야영(캠핑) + 소풍(피크닉)' 콘셉트도 이어간다. 올해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비치하는 '북 캠프'를 계획 중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변화는 '뮤지컬 페스티벌'이다. 주말인 25일 오후부터 밤까지 다양한 음악인들의 연주가 귀를 즐겁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음악축제' 콘셉트로 길동무 꽃길축제의 핵심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아름다운 봄꽃과 매력적인 즐길거리가 가득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담양 고서면-해남 삼산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담양군 고서면과 해남군 삼산면은 해남군 삼산면사무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서면과 해남군 삼산면 직원 30명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도모하고 양 지역 간의 상생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상호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식은 동년배인 고근석 고서면장과 박정일 삼산면장의 오랜 인연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평소 면정의 주요 현안을 자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행정업무 상호 협조를 통해 지역 대표 축제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고근석 고서면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양 지역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관계를 이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장진성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라남도의 '2024년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한우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1억원 등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으뜸한우 브랜드 육성 시동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라남도의 '2024년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한우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1억원 등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혈통이 등록된 고능력 번식 암소 농가에 유전 능력 검사, 선형심사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 우량암소와 송아지를 선발·관리하고 으뜸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선 우량암소 생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나주시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 암소 사육 비율이 전체 한우 5만8천334두 중 약 70%인 3만5천724두에 달해 사업 최저지로 꼽히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4월 중 설명회를 갖고

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농가 모집 후 선형심사, 친자확인 등을 거쳐 으뜸한우 송아지를 선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나주축협 우(牛)시장에서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해 도내 축산 1번지로서 명품한우 육성체계 구축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김동철 기자

화순군,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개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직장생활 등 바쁜 일상으로 인해 전입 신고하기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초 입주를 시작한 363세대 규모의 화순 현대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부터 시작한다.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와 화순읍행정복지센터 담당 부서가 협업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전입신고 접수를 한다.

이 서비스는 관공서 운영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안내문, 안내방송 등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고, 향후 다른 아파트에서도 원한다면 서

스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주민은 본인과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현장 접수 여서 실제 전입은 다음 날인 4월 18일에 이뤄진다.

화순군은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받는 것과 더불어 전입 장려금, 전입세대 이사비용, 화순군 결혼장려금 등 화순군 인구정책 홍보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 지원하는 전입 장려금 관련 지원금은 ▲전입 장려금 25만 원 ▲전입세대 이사비용 최대 100만 원 ▲학생 전입 축하금 100만 원 ▲결혼장려금 1천만 원으로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